

목차

1. 서론
2. 자연 생태의 발견과 글쓰기의 특징
 - 1) 자연물의 발견과 구체적 형상화
 - 2) 동물 생태의 '비의(秘儀)'와 서사적 현장성
3. 이덕무 소품문과 산문교육의 의의
4. 맺음말

1. 서론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18세기 소품문이 차지하는 문학적, 역사적 비중은 만만치 않다. 17세기 후반에 명말 소품문이 수용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면 명나라의 소품문들이 널리 열독되면서 문인들 사이에 소품문의 글쓰기가 대유행을 하게 된다. 박지원, 남공철, 이옥, 김려, 이덕무, 박제가, 심노승, 이용휴 등 18세기의 대표적 문인들이 활발하게 소품문을 창작하였다. 이들 문인들은 소품문으로 당대 글쓰기의 관습과 전범을 거부하고 혁신적인 경향의 글쓰기를 시도하여 18세기 문단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로 인해 '문체반정'이 일어나는 등 당대의 사회와 문화에 끼친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최근 들어 조선후기 소품문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소품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되어,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며 동시에 대표적인 작가들의 소품문 선집도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소품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소품문 자체의 문학과 미학성이 뛰어난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의 소품문 연구는 소품체 산문의 특징을 탐색하거나, 뛰어난 소품문 작가들의 개별적인 작품 경향과 특징을 밝히거나, 소품체 산문의 영향관계를 살피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¹⁾ 이러한 연구 성과 덕분에 소품문의 산문사적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박지원·이옥·이덕무·박제가·이용휴·조희룡 등 소품문에 탁월한 작가들의 작품 특색과 미학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중 이덕무의 소품문은 작자의 창신(創新)과 개성을 중시하는 문학과 함께 엄청난 분량의 작품 편수, 광범한 분야의 다채로운 제재, 서정적인 표현,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²⁾ 실상 이덕무의 산문은 소품문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1) 안대희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이 책은 2003년까지 나왔던 소품문과 관련한 주요 연구 논문들을 모아 엮고,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여 소품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민, 「연암 척득 소품의 문예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이기현, 「조희룡 소품문 연구-척득, 제화소품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2) 강명관, 「이덕무와 공안파」, 『민족문화사연구』 21, 민족문화사학회, 2001.
강명관, 「이덕무 소품문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2002.
안대희,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 『고전문학연구』 24, 2003.
심경호,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홍인숙, 「이덕무 척득 연구-내면 혹은 사적 자아의 발견」, 『한국한문학회연구』 33, 한국한문학회, 2004.

주목받게 된 것이지, 소품문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흥미를 끌지 못했다. 이덕무의 산문이 소품문의 글쓰기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덕무의 산문 작품은 그저 산만하고 잡다한 지식과 견문의 기록에 불과한 텍스트로 취급되었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획 정리되지 않는 텍스트의 잡다함 때문에 의미부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덕무의 소설 배격론이나 일상적인 생활규범을 정리한 『사소절』에 더 학문적 가치를 두었다. 그런데 소품문 문체의 혁신성과 그 가치가 밝혀지면서 이덕무 산문 즉 소품문의 가치도 재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이덕무 소품문에 대한 연구는 그의 산문이 지닌 소품문적 경향이 무엇인가, 소품문으로서 이덕무 산문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소품문적 경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하는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연구들로 이덕무 소품문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중국 공안파의 문학을 수용하여 새로운 문체 실험을 했으며, 문체를 통해서 당대 사회의 문화적인 격식과 사회적인 고정 관념을 넘어섰고,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감각적 형상화를 무기로 세계의 구체성을 포착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체적 특징이 성리학적 진실을 의심하게 하였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이덕무 소품문의 의미가 밝혀진 것이다.

그 다음의 연구들은 이덕무 소품문의 개성과 묘미가 무엇인지, 동시대의 여타 소품문과는 다른 이덕무 소품만의 색깔과 가치는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척시켰다.³⁾ 이 연구들은 이덕무의 초기 산문과 척독에 주목하여 빼어난 산문언어와 인물정태의 씩씩하고 진실한 묘사, 감각적 언어, 개성적 비유, 대화체 활용, 내면의 발견과 같은 이덕무 작품의 특징적이고 개성적인 면모를 밝혀주었다. 연구사의 진전으로 이덕무 소품문의 개성이 여러 측면에서 탐색되었지만,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논의가 앞으로 더 요청된다.

이덕무의 소품문이 문학사 특히 고전산문사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는 과정을 지켜보면, 문학교육에서 고전산문이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를 반추해볼 수 있게 한다. 현재 문학교육에서 고전소설을 제외한 고전산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굳이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연구사에서 소품문뿐만 아니라 고전산문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난 까닭에 문학교육에서 고전산문에 대한 이해도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지극히 잡다하고, 지극히 일상적이며, 문학적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오해와 편견에 의해 고전산문은 몇 편의 작품 외에는 교육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⁴⁾ 기왕의 소품문 논의만을 살피더라도 고전산문의 문학적 정취와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또한 고전산문에는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정채롭고 다양한 언어 표현들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뛰어난 고전산문 작품들을 선택하여 교육하면 우리들의 문학적 사유는 더 깊어질 것이고, 글쓰기의 진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폭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점에서 누구보다 뛰어나며, 작품적 가치도 충분한 이덕무의 소품문에 주목하

권정원, 「이덕무 초기 산문에서 공안파 수용의 실천양상」,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3) 안대회, 앞의 논문.

권정원, 앞의 논문.

홍인숙, 앞의 논문.

4) 김대행, 『문학교육의 틀짜기』, 역락, 2000. 이 책에서는 문학교육에서 수필문학이 잡다한 무형식의 글쓰기로 취급되어 실제로는 교육현장에서 번두리 문학으로 다뤄진다고 지적하였다. 고전소설을 제외한 고전산문도 크게 수필장르로 규정되어 거의 다뤄지지 않으며 이규보의 「슬견설」, 이곡의 「차마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조침문」, 「동명일기」,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 정도의 극히 일부의 작품만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 그 작품들의 산문교육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덕무 소품문의 개성과 미학을 찾아내어 그 특징들이 산문교육의 본질에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2. 자연 생태의 발견과 글쓰기의 특징

이덕무의 문집에는 시와 시평, 기와 서(序), 서간과 같은 정통 산문으로부터 교훈서, 형식이 자유로운 소품적 산문, 글자 뜻을 풀이하거나 글자를 고증하는 글 등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⁵⁾ 당대 사람들에게 방대한 독서와 박학(博洽)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답게 그 지적 편력은 놀라울 정도다. 그 중에도 소품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짙막한 소품문들은 고증과 박학, 백과전서식 지식의 수집에 열을 올렸던 이덕무의 학문 경향처럼 그 소재가 다채롭기 그지없다. 그의 소품문은 대체로 천지자연과 인정세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생활의 지혜 혹은 생활상의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하거나, 시류에 대해 비판하거나, 자신의 생활을 응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소품문의 대체적 경향이 생활주변의 소재를 감각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면, 이덕무의 소품문은 치밀하고 세세한 묘사와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에 있어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⁶⁾ 치밀한 묘사와 아름다운 수사적 표현은 이덕무 소품문에 빠져들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덕무 소품문을 읽는 재미와 묘미는 자연생태의 비의를 포착해낸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점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이덕무 소품문만의 독특함이다.

1) 자연물의 발견과 구체적 형상화

이덕무는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 전체의 분위기나 흐름을 설명하지 않는다. 풍경의 일부분 혹은 세부적인 데에 시선을 집중하여 이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풍경 전체의 분위기를 전한다. 아래의 소품문은 풍경 중에서도 물고기와 새의 활동에 주목하여 춘삼월의 분위기를 전한다. 물고기와 새의 움직임만으로도 그 계절의 느낌과 풍취가 충분히 드러난다.

3월의 푸른 시내에 비가 처음 개고 햇빛은 화사한데 복숭아꽃의 붉은 물결이 언덕에 넘쳐흐른다. 이때 오색빛 작은 봉어가 지느러미를 빨리 움직이지 못한 채 마름 사이를 헤엄치다가 거꾸로 서기도 하고 가로누워 있기도 하고, 주둥이를 물 밖으로 내놓기도

5) 그의 문집 속의 글을 대략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문집 「영처고(嬰處稿) : 사군자가 몸가짐과 마음 쓰는 것을 어린 아이나 처녀같이 해야 한다」·시문집 「청장관고(靑莊館稿) : 온종일 물가에 우두커니 서서 먹이를 구하지 않고 앞에 지나가는 고기만 쪼아먹는 새가 청장」(「아정유고(雅亭遺稿)」로 묶임)·산문집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 언어행동에 있어 도에 떠나지 않고, 귀·눈·입·마음의 책임을 게을리 아니하여 듣는 대로 보고 쓰고, 보는 대로 쓰고, 말하는 대로 쓰고, 생각하는 대로 쓴다」·교훈서 「사소절(士小節) : 조그마한 예절을 삼가지 않으면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비의 비근한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글」·시비평집 「청비록(淸肥錄) : 빼어난 글귀를 채택하여 나의 창자를 씻는다는 시화집」·아동 역사서 「기년아람(紀年兒覽) : 상고부터 저자시대까지 중국과 본국의 역대 제왕 세차의 요강과 주현의 이름, 발해 일본들의 행정구역 명칭까지 부기한 아동용 도서」·산문집 「양엽기(養葉記) : 밭을 갈며 향아리를 밭가운데 묻어놓고 감나무 잎을 따 일사(佚事)를 찬하여 향아리에 넣되, 한 이랑이 끝나면 하나씩 넣고 하듯이 했다는 의미. 일종의 소백과사건」, 영남풍속지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 : 영남의 건문을 기록, 片札까지 수록」·훈고집 「예기억(禮記憶) : 예기의 의심되는 뜻과 어려운 글자 해석」·산문집 「선굴당농소」·일본풍속지 「청정국지(淸庭國志) : 일본의 世系·지도·風謠·토산 기록」 등이 있다.

6) 안대희와 권정안은 이덕무 소품문의 감각적이고 세밀한 표현적 특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면서 아가미를 벌름거리고 있으니, 이야말로 지극한 진기(眞機)로 자연 그대로다.

따스한 모래는 깨끗한데 온갖 물새들이 돌돌 혹은 넋넋씩 짝을 지어 금석(錦石)에 앉기도 하고 꽃나무에서 지저귀기도 하고, 날개를 문지르기도 하고 모래를 몸에 끼얹기도 하고, 물에 그림자를 비춰보기도 하면서 스스로 천연한 태도의 묵묵(穆穆)함을 사랑하니 요순 시대의 기상과 다를 것이 없다.

이를 보노라면 웃음 속의 칼과 마음속에 모여 있는 많은 화살과 가슴 속에 가득한 가시가 일시에 깨끗이 없어져 한 가닥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늘 내 의사를 3월의 도화꽃 물결이 되게 하면 활발한 물고기와 새들처럼 자연 나의 순탄한 마음을 돕는 것이 있을 것이다.⁷⁾

3월의 화사하고 약동하는 분위기가 물고기와 새의 움직임으로 전해진다. 이덕무의 카메라 렌즈는 시냇물에서 헤엄치는 오색의 작은 붕어와 모랫가에 노니는 온갖 물새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 작은 붕어가 봄을 만끽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지느러미의 움직임, 자거나 서있는 모습, 주둥이와 아가미의 움직임 등에서 찾아낸다. 물새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넋넋씩 짝지어 금석에 혹은 꽃나무에 앉은 모습, 혹은 모래를 몸에 끼얹거나 물에 자신의 몸을 비추는 동작 등을 날날이 서술한다. 대상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 접근하여 자연의 진상을 전하려는 서술자의 정밀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해진 붕어와 새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로우면서 생동감이 넘쳐난다. 이덕무는 봄 풍경의 평화와 따사로움을 추상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붕어와 새라는 자연의 구체성 속에서 평화와 따사로움을 체험하게 한다.

마지막, 붕어와 새의 진경 속에서 이덕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전하는 말도 구체적이고 아름답다. 마음이 고요하고 순탄하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자연으로 인해 변화된 마음을 비유로 전한다. 웃음 속의 칼과 마음 속의 화살과 가슴 속의 가시가 깨끗이 없어져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표현한다. 마음의 변화를 그림처럼 그려 낼 수 있게 한다. 아마도 이처럼 멋진 아포리즘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은 생태의 미묘한 움직임과 구체적이고 정밀한 묘사가 빛을 발한, 이덕무 소품문 중에 일품이다.

총목(叢木)이 여러 그루 섞이어 있는데 자웅으로 짝지은 까치며 예닐곱 마리가 매우 한가로이 앉아 있다. 그것들은 부리를 가슴에 파묻어 눈을 반쯤 감고 자는 듯도 하고 자지 않는 듯도 하며, 혹은 조금 떨어져 또 그 부리를 갈기도 하며 목을 돌리고 발톱을 들어 눈을 긁기도 하고, 다리를 들어 옆에 있는 놈의 날개깃을 긁어 주기도 하며, 눈이 정수리에 쌓이면 흔들어 털고는 눈동자를 바로 하여 눈 날리는 모양을 조용히 보기도 한다.⁸⁾

눈 내리는 겨울날 총목 위에 앉아있는 까치 떼의 풍경을 그려낸 장면이다. 마치 바로 앞에서 까치 떼를 관찰한 듯, 까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이 장면을 읽으면 까치들의 행위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바로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나뭇가지에 앉아 부리를 묻고 조는 까치부터 눈 내리는 광경을 응시하는 까치

7) 이덕무, 「이목구심서」, 『청장관전서』 48권, 민족문화추진회.(번역문은 『국역청장관전서』(민족문화추진회, 1978)에 의거한다. 이후의 인용문에 대해서는 출전을 생략하겠다.)

月靑谿。時雨新晴。日色怡熙。桃花紅浪。激灑齊。五色小鯽魚。不能猛鼓其鬣。游泳荇藻間。或倒立或橫翻。或吻出于浪。細呷粼粼。眞機之至。猜枝怡然。暖沙潔淨。鳩鵲鸚鵡輩。二二四四。或睡錦石。或啜芳芷。或刷翎。或浴沙。或照影自愛。天態穆穆。無非唐天虞日之氣象。笑中之刀。剗心之萬箭。胸中之三斗棘。掃除之快。不留一纖翳。常以吾意思。爲三月桃花浪。則魚鳥之活潑。自然助吾順適之心耳。

8) 이덕무, 「70리에 덮인 눈에 대한 기(記)」, 『청장관전서』 3권, 민족문화추진회.

叢木之擘。乾鵲雄雌五六七八。坐甚閑暇。或埋喙于臆。半掩眼。似睡未睡。或枝之。又礪厥喙。或匝脰。仰爪刮其眼胞。或矯脛。刷旁鵲之肩羽。或雪積其頂。振動之。使飛墜。仍定睛。凝看飛勢。

까지, 미세한 움직임은 포착하는 숨씨 때문에 ‘정중동(靜中動)’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는데도 풍경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눈 내리는 가운데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그 고요하면서도 살아오르는 듯한 기운이 까치 떼의 풍경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의 간결한 묘사만으로 풍경 너머의 정감을 전해주는 일은 대상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오랜 시간의 주도면밀한 관찰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덕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응시하고 주시한다. 천지자연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다. 우리의 주변세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관찰 거리이자 글쓰기의 소재가 되었다. 그는 관찰하여 뭔가 다른 점이 포착되면 그것을 글로 표현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만이 여섯 모인 줄 알고 서리 또한 여섯 모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내가 정명한 아침에 자세히 보니, 서리에 여섯 모가 난 것이 거북 무늬처럼 매우 고르고 반듯하였다. 그러나 섬세하게 조각된 듯한 정교한 눈만은 못하였다. 눈과 서리는 모두가 수분이 찬 것을 만나서 응고될 때 뽀족하고 날카로운 쇠와 나무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중간에 있는 물에 기운이 맺혀 단단한 물질을 이루면 위로는 모금(母金) 금생수(金生水 : 금이 물을 낳는다)의 날카로운 것을 잇고, 아래로는 자목(子木) 수생목(水生木 : 물이 나무를 낳는다)의 모서리를 이룬다. 나누어 말하면 눈은 기운을 받은 것이 다소 가볍고 연하니 목(木)에 가깝고, 서리는 받은 기운이 조금 무겁고 역세니 금(金)에 가까운 것이다. 또 물이 처음 얼음으로 영길 때에 능히 화죽(花竹)·지엽(枝葉)의 형상을 이루고 그 끝이 반드시 뽀족하고 날카롭다. 우박 또한 모서리가 있으니 모두 서리와 눈의 종류이다. 여섯 모가 난 것은 물의 수(數)이니 수정(水精)과 음정석(陰精石)이 또한 여섯 모이다.⁹⁾

내가 전에 서리[霜] 조각을 보니 거북 무늬 같았고 근자에 또 보니 어떤 것은 비취(翡翠) 털 같기도 했다. 또 어떤 것은 아래에 작은 줄기가 있는데 매우 짧고 가늘고 위에는 좁쌀 같은 것이 모여 있는데 반드시 여섯 개가 모두 뽀족하고 곧게 서 있었다. 대저 기와나 나무에 붙은 것은 심히 작고 가늘며 마른 풀에 붙은 것은 아주 분명하고, 밖에 드러나 있는 해진 숨이나 베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하나 셀 수 있어 그 기묘한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향시 자세히 구경할 적마다 가슴속의 묘한 생각이 마치 누에가 실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눈과 우박이 또한 두어 종류 있는데 성에[霧淞花]도 서리의 종류이다. 대개 눈과 우박은 공중으로부터 이미 형상을 이루어 내려오기 때문에 낮과 밤을 논할 것이 없다. 그런데 서리와 성에는 기운이 겨우 물건에 붙으면 바로 모양을 이루어 그 상태로 영기니 이는 다만 밤을 타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서리는 오직 밖에 드러난 곳에만 생기니 기운이 곧장 내려와서 그러한가. 성에는 서리와 아주 달라서 처마 사이의 깊숙하고 은밀한 곳이라도 나무 조각이나 갈대, 혹은 뒤섞인 터럭, 영킨 실이 있으면 그곳에 꽃이 생긴다. 대개 안개 같은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 있어서 넘치고 흩어져 비록 처마 사이라도 기운이 통할 만한 곳에는 들어가서 꽃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한 가지 기이한 구경거리이다.¹⁰⁾

9)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世人但知雪之六出。而不知霜亦六出。余清朝細看霜有六稜。如龜紋而甚均正。但不如雪之細雕頗費天巧耳。始知雪霜皆水氣所化。遇寒而凝。必有稜銳者。金木之象也。水居中氣。結成堅質。則上承母金之銳。下傳子木之稜。分而言之。則雪受氣稍輕而軟。近木也。霜受氣稍重而勁。近金也。又水之初凝水。能成花竹枝葉之狀。其端必尖利。雹亦有稜。皆霜雪之類也。六出者。水數也。水精及陰精石。亦六稜也。

10)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余前見霜片如龜文。近又見。或如翡翠毛。或下有一微莖甚短細。上必有如粟粒者。相聚必六箇。皆矗矗直立。大抵着瓦者着木者甚微細。着茅茨者頗分明。着曝露之敗絮壞布者。歷歷可數。其奇巧不可勝言。余每細玩胷中妙思。如蠶抽絲耳。雪雹之類。亦有數種。霧淞花。霜之類也。蓋雪雹。自空中已成形而下。故無論晝夜。霜及霧淞花。氣纔着物。始成形。而仍粘凝。是只乘夜爲之故耳。且霜。只露天處生了。意者氣直下歟。霧淞花。大異於霜。如簷間奧密處。若有木柿茅葦。或亂髮焚絲。無不緣而生花。此蓋霧氣之類。密塞天地。橫溢奔逐。雖簷間。氣可通處。則橫入而生花耳。此亦一奇玩。

이 두 편의 글은 시차를 두고 쓰였다. 내용상 앞의 글이 먼저 쓰이고 뒤의 글이 나중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앞글에서는 서리의 모양이 눈과 같은 육모라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서리와 눈과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생태학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뒷글에서는 비취털 모양부터 다양한 모양의 서리를 묘사하고 성에와 생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서술하고 있다. 처음에는 육모 모양의 서리를 보고 이 놀라운 현상을 전하기 위해 글을 썼고 그 다음엔 장소에 따라 서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맺힌다는 현상에 다시 한 번 놀라워하며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글을 썼던 것이다.

이덕무의 관찰은 서리에만 머물지 않고, 서리와 비슷한 성에에까지 미친다. 서리에 가닿았던 시선이 성에에 이르고, 그런 뒤에는 반드시 그 두 가지의 현상적 차이와 성질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대상을 관찰하는 이덕무의 태도는 생물학자 혹은 과학자의 치밀함과 결코 다르지 않다. 오늘날의 글쓰기 시각에서 보면 이 글은 마치 서리를 관찰하고 나서 쓴 생물학 보고서와 같이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의 관찰보고서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대상에 대한 진진한 호기심과 대상의 새로움을 발견한 자의 흥취가 글에 오롯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예견치 못한 대상과의 우발적 마주침에 기뻐하고, 사물의 기이함에 맘껏 신기해하고 감격하는 서술자의 시선은 대상에 대한 정감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대한 정감까지 배가시킨다. 이 글의 문학적 정취는 사물의 현상을 정밀하게 묘사하여 사물이 마치 살아있는 듯 느끼게 하는 데서 일어나며, 사물에 몰입하는 열정적이고 따스한 시선에서도 묻어난다. 이덕무는 객관적 관찰기로서, 문학적 글쓰기로서 어느 쪽에도 손색이 없는 글쓰기를 구사한 것이다.

2) 동물 생태의 ‘비의(秘儀)’와 서사적 현장성

이덕무는 동물의 생리를 민감하게 관찰한다. 이덕무가 서술한 동물들의 생존 본능을 읽으면,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처럼 신기하다. 이덕무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자연의 비밀을 전해준다. 살기 위해 치열하게 머리를 쓰고 사는 동물들의 생존전략을 이야기해준다.

한 마리 쥐가 닭장에 침입하여 네 발로 계란을 안고 누우면 다른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어 당겨서 닭장 밖으로 떨어진다. 그리고는 그 쥐 꼬리를 다시 물어 당겨서 쥐구멍으로 운반한다. 또 병에 기름이나 꿀이 있으면 병에 올라 앉아 꼬리로 문혀내어 몸을 돌려 그 꼬리를 훔쳐 먹는다.

한 마리 족제비가 온몸에 진흙을 발라 머리와 꼬리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하고는 앞발을 모으고 썩은 말뚝처럼 사람같이 발뚎에 선다. 그러면 다른 족제비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그 밑에 누워 있다. 그때 까치가 와서 엿보고 죽은 줄 알고 한 번 찍는다. 짐짓 꿈틀하면 까치가 의심이 나서 재빨리 썩은 말뚝 같이 서 있는 놈 위에 앉는다. 그 놈이 입을 벌려 그 발을 깨문다. 까치는 그때야 족제비의 머리에 앉은 것을 알게 된다.

벼룩이 온몸을 물면 나무토막을 물고 먼저 꼬리를 시냇물에 담근다. 그러면 벼룩이 물을 피하여 허리와 잔등이로 모여든다. 담그면 피하고 담그면 피하고 하여 차츰 목까지 물속으로 넣는다. 벼룩이 모두 나무로 모이면 나무를 물에 버리고 언덕으로 뛰어오른다.

누가 가르친 것도 본래 언어로 서로 깨우쳐 준 것도 아니다. 가령 한 마리 쥐가 알을 안고 놓더라도 다른 쥐가 그 꼬리를 물고 끌 줄을 어떻게 아는가. 한 족제비가 말뚝처럼 섰는데 다른 족제비가 그 아래에 죽은 듯이 누울 줄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자연이 아닌가. 그렇더라도 사람으로서 교묘한 꾀로 교활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쥐와 족제비 같은 종류인 것이다.¹¹⁾

11)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닭의 크기가 쥐보다 10배가 된다. 쥐가 닭을 씹어 배 속까지 뚫고 들어가도 닭은 피할 줄을 모르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아무 일이 없는 듯하다. 뱀은 지네보다 백배나 크다. 지네가 뱀을 쫓으면 뱀은 달아나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엎드려 있다. 지네가 입으로 들어가면 곧 뱀이 죽는다. 지네는 뱀의 살이 모두 썩어야 나온다. 쥐가 또 아얌(鵝鴨)을 뚫는데 아얌이 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 돼지·고양이·오리가 모두 뱀을 즐긴다. 닭은 두꺼비 새끼를 통째로 삼키기를 물 마시듯 한다. 거미 오줌이 지네에게 닿으면 지네가 물이 되고, 달팽이 침이 지네에게 묻으면 지네의 발이 다 떨어진다. 달팽이는 전갈(全蠍)도 제압한다.¹²⁾

쥐, 족제비, 지네, 닭, 거미, 달팽이들의 생태만 기록했는데도,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 쥐와 족제비가 생존을 위해 벌이는 치열한 모습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동물들의 비이하기 때문이다. 치밀하고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동물들의 생태는 좀처럼 알기 힘들다. 이 글을 보면 이덕무는 동물학자이다. 침팬지를 연구했던 제인 구달처럼 보인다. 주변에 있는 여러 동물, 곤충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존 전략을 유지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 알게 된다. 동물의 감추어진 생활 모습은 읽는 이에게 비밀스런 사실을 알아낸 듯 쾌감을 준다. 그런데 그 묘사는 아주 생생하여 카메라 안에 포착된 동물을 보는 듯하다. 이덕무는 특징적인 장면을 잡아서 아주 적실하게 표현한다. 이런 특징은 이 소품문을 단순한 동물 관찰기 이상으로 만들어준다.

다음의 글들은 짧지만 강렬한 동물의 서사를 보여준다.

정조사(正朝使)가 북경에서 돌아올 때 상인이 어미 원숭이를 사 가지고 왔는데 그 원숭이는 마침 새끼를 배고 있는 중이었다. 이미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자, 어미 원숭이는 슬퍼하며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으므로 그 상인은 원숭이를 위로하였다. 도중에 새끼를 낳자 그 사람은 소매 속에 새끼를 넣고 가면서 때로는 꺼내어 젖을 먹게 했다. 하루는 원숭이가 새끼를 빨리 꺼내 달라 하여 머리 위에 새끼를 이고 사람마냥 걸어가는데 소리개가 새끼를 채어 가버렸다. 이에 어미 원숭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그 사람은 또 위로하기를,

"네가 비록 슬퍼한다 하더라도 어찌 하겠는가. 원숭아, 너의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하였다. 여관에 이르자 원숭이는 문득 닭을 잡아 털을 뽑아 머리에 이고 소리개가 채갔던 곳에서 빙빙 돌아다녔다. 소리개가 또 내려와 움켜질 때에 어미 원숭이는 재빨리 소리개를 잡아 찢어 죽였다. 그리고 그 원숭이는 상인이 낮잠 잘 때를 기다렸다가 고삐를 풀어 목을 매어 자살했다. 아! 슬프다. 이것은 진실로 짐승이지만 사람이나 다름없고, 또 장사꾼은 사람이면서 오히려 짐승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으니, 어찌 사람이 귀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힌데다가 또 새끼마저 잃었으니 죽지 않고 어찌하랴.¹³⁾

一鼠入雞窠中。四足仰抱雞卵而臥。一鼠啣其尾。曳之墜于窠外。則仍又啣其尾。曳之輪于穴。瓶有油或蜜。蹲于瓶。以尾探入于中。塗之以出。回身舐其尾。

一黃鼠。渾身塗濁泥。不辨首尾。縮前二足。人立于田畔。如朽狀。一黃鼠瞑目屏氣。僵卧于其下。有鵲來窺以爲死。一啄之。故蠢動。則鵲疑躍而坐于朽杙。朽杙開口噉其足。鵲始知坐于黃鼠之首也。渾身蚤咀。廼啣一木。先沉尾于溪。蚤避水萃于腰脊。隨沉隨避。涔涔沒項。蚤盡集于木。然後捨木於水。騰身於岸。孰教之乎。本無言語相曉。假使一鼠抱卵臥。其一安知啣其尾乎。一黃鼠作朽立。其一安知僵其身乎。是豈非自然乎。雖然。人有挾小術。以肆狡黠者。其鼠黃鼠之類乎。

12)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雞之大十倍於鼠也。鼠直啖雞肉。穿入腹中。而雞不知避。亦不小動。兩目湛然若甘心者。蛇之大百倍於蜈蚣也。蜈蚣逐蛇。蛇不能走。氣沮如痴。張口而伏。蜈蚣入其口。須臾蛇死。肉皆壞爛而始出。鼠又穿鵝鴨。鵝鴨不知避。猪猫鵝皆嗜蛇。雞活吞蟾子。如飲水矣。蜘蛛溺沾蜈蚣。蜈蚣化爲水。蝸牛涎繞蜈蚣。蜈蚣足盡落。蝸牛亦伏蝸。

13) 이덕무, 『이목구심서』 4, 『청장관전서』 51.

正朝使。自北京歸時。賈人沽母猿而來。方娠也。旣入我境。悲而躑躅。賈人寬慰之。中途生子。人納于袖中。行

군도감(軍盜監)에, 장마비가 깨끗하게 개자 큰 구렁이가 창고 옆의 족제비 구멍으로 들어가 그 새끼를 삼키고는 배가 불러서 뜰에 나와 있었다. 잠시 후 족제비 암수가 급히 나와서 구렁이 앞에다 번갈아 땅을 파는데 그 길이가 매우 길어 대 홈통 같았다. 또 그 양 끝에다 수직으로 구멍을 파되 깊이는 암수가 각각 꼬리로부터 주둥이까지의 길이와 같게 하였다. 구렁이가 드디어 구불구불 기어서 땅 판 곳으로 들어갔는데, 머리로부터 몸 끝까지 꼭 끼어 빈틈이 없이 들어맞았다. 잠시 후에 구렁이는 몸 양 끝을 움직이지 못하고 배를 뒤집으려 하나 뒤집지도 못하여 드디어는 죽고 말았다. 아마도 두 마리 족제비가 몰래 깨물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족제비들이 나와 구렁이의 배를 가르니 네 마리 새끼 족제비가 죽어 있었는데, 몸에는 다친 데가 없었다. 꺼내어 깨끗한 땅에 누이고, 암수가 번갈아 콩잎과 계장초(鷄腸草)를 물고 왔다. 먼저 콩잎을 퍼서 새끼들 밑에 깔고 계장초를 꽤 두껍게 덮었다. 그리고 나서 암수는 각기 양쪽에서 주둥이를 앞사귀 속에 묻고 입김을 부니 새끼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났다.

아, 얼마나 지혜롭고 의롭고 자애로운가!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갖추었다면 선인(善人)이라 할 만하다. 전에 나는, 족제비를 잡아다 때릴 적에 여러 족제비들이 사방에서 모여 힘을 다해 그 위급함을 구해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의리는 가히 경탄할 만하다.¹⁴⁾

위의 두 소품문은 사람보다 더 나은 원숭이와 족제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덕무가 직접 목격한 장면처럼 기술되어 있다. 앞의 글은 솔개에게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솔개를 죽이고, 자신도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이야기이다. 뒷글은 족제비 새끼 네 마리를 삼킨 구렁이를 어미 아비 되는 암수 족제비가 피를 내어 죽이고, 새끼를 살려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목격하기 어려운 동물의 기담을 이덕무는 사실로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원숭이 이야기는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듯하고, 족제비 이야기는 이덕무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서술한 듯하다. 전해 들었던, 직접 목격했던 이덕무는 이런 동물의 이야기들이 동물의 특별한 진기라 생각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강한 모성을 가진 원숭이, 지혜롭고 의롭고 자애로운 암수 족제비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이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슴 뭉클한 한 편의 서사로 동물과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이덕무는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들 이외에도 많은 소품문에서 동물들의 신비로운 생명 원리를 담아내었다. 이덕무의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은 18세기 소품문 작가들이 천지만물에 주목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던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유독 이덕무의 소품문에는 자연 생태의 새로운 면모, 혹은 동물 생태의 놀라운 비의들을 묘사하는 글이 많다. 이덕무는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유난했던 듯하다. 이런 점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른 소품문 작가들은 천지만물에 대한 묘사를 더 세밀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이덕무는 생물학자나 동물학자처럼 자연의 생태적인 측면에 치열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덕무에게 이런 자연은 풍경이나 이야기의 소재거리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적인 관심으로, 학문적인 관심으로 동물이나 곤충을

時出使乳之。一日。猿巫請出子。因戴首人立而行。有鳶攫去。猿悲不能耐。人又慰曰。爾雖悲。其奈何。猿若寬心者焉。至店舍。忽捉雞剝毛。仍戴而周旋於鳶攫處。鳶又下攫。猿始執鳶磔之。俟賈人晝睡。解其鞵。結項而死。噫。是固謂獸而人者。彼人而獸者。何足貴哉。猿見繫於人。又失子。不死而奚爲。

14) 이덕무, 「이목구심서」 4, 『청장관전서』 51.

軍盜監霖雨新霽。有大蟒。入倉旁黃鼠穴。吞其雛。腹果然。出伏於庭。須臾。黃鼠牝牡倉黃而來於蟒前。迭穿地甚長。若窺焉。于兩端。又直鑿穴。仍各自尾而豎。其喙纔與穴口齊。蟒遂遂進入穿地。自首至尾。恰受無罅。少焉。蟒兩端不敢動。腹翻閃不定。遂斃。蓋二黃鼠潛咋也。出而破蟒腹。有四雛死而體全。出置淨地。迭含菽葉及雞腸草來。先布菽葉藉雛。覆以雞腸草頗厚。各於兩旁。埋喙葉中吹氣。四雛蠕蠕乃生。噫。智哉義哉慈哉。人若具三焉。可謂善人也已。余蓋聞擒黃鼠撻之。衆黃鼠四集。力救其急難之義。可感歎。

관찰한다. 그리고 이것을 문학적인 글쓰기로 전달하였다.

이덕무는 눈, 서리, 까치, 닭, 쥐, 족제비 등 자연물의 생태를 관찰하여 그 자연물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어떤 작품을 읽으면 아름답고, 어떤 작품을 읽으면 경이롭다. 어떤 장면에서는 은은한 정감이 느껴지고, 어떤 장면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이덕무 소품문의 매력이다.

3. 이덕무 소품문과 산문교육의 의의

이덕무에게 소품문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적 글쓰기의 틀을 깨기 위한 문학적 실천이었다. 이덕무는 소품문을 창작함으로써 사회적 통념에 균열을 가하고, 규범적 글쓰기에 저항하였다. 그래서 기존 글쓰기에서는 쓰지 않던 미미한 세계를 이야기거리로 삼았으며, 비유와 형용을 주된 문체로 구사했다.

이덕무를 비롯해 18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틀에 박힌 글쓰기, 전범을 답습하는 글쓰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덕무는 일찍부터 “무릇 시문이란 한결같이 정신이 流動하여야만 바야흐로 살아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진부한 것을 답습한다면 이는 죽은 글이니, 일찍이 육경의 글에 정신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¹⁵⁾라고 말하며, 전대의 글을 답습하거나 진부하게 표현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는 기존 글쓰기에 담긴 내용, 사상적 기반, 문체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덕무는 미물의 섬세한 움직임과 양태를 포착하고 내가 발견한 그 사물의 독특한 세계, 혹은 그 묘한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언어가 지닌 신선함을 더 높이 샀다.¹⁶⁾ 이는 고문의 격식과 반복되는 표현, 형이상학적이고 고식적인 관념의 세계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닿아 있다. 이덕무에게 세계의 이법을 알리는 “연비어약(鳶飛魚躍)”과 같은 표현과 세계는 너무 진부하다. 거기서는 나만의 개성과 정신이, 혹은 세계의 특이성이, 세계의 묘상이 간취되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 죽은 글일 뿐이다. 그래서 미미한 자연 세계, 생활 세계의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생동하는(활발발한) 개성¹⁷⁾을 그려내는 것을 좋은 글로 주장하였다.

15) 이덕무, 「題內弟稿」, 「영처문고」 2, 『청장관전서』 4.

凡詩文。箇箇有一脉精神流動。方是活文。若蹈襲腐陳。便是死文。盍嘗觀六經之文。無精神未。

16)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어린 아우 정대가 이제 겨우 9세인데 타고난 성품이 매우 둔하였다. 그가 갑자기 말하기를,

“콧 속에서 쟁쟁 우는 소리가 난다”하기에 내가 묻기를

“그 소리가 무슨 물건과 같으나?”하니, 대답하기를,

“그 소리가 동글동글한 별 같아서 보일 것도 같고 주울 것도 같다”하였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형상을 가지고 소리를 비유하니 이것은 어린 아이가 무의식 중에 타고난 혜식(慧識)이다. 예전에 어린 아이가 별을 보고 달 가루라고 하였다. 이런 등의 말은 예쁘고 고와서 때묻은 세속을 벗어나 속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하였다.

17)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기이하고 빼어난 기운이 없으면 어떤 물건이고 모두 평범하게 된다. 산(山)은 이 기운이 없으면 깨어진 기왓장이고 물(水)은 이 기운이 없으면 썩은 오줌이다. 학사(學士)가 이 기운이 없으면 마른 풀을 묶어 놓은 것이고 방외(方外)가 이 기운이 없으면 진흙을 뭉쳐 놓은 것이다. 무부(武夫)가 이 기운이 없으면 밥통일 뿐이요, 문인(文人)에게 이 기운이 없으면 때 주머니이다. 충어(蟲魚)·화훼(花卉)·서화(書畫)·기즙(器汁)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 영숙(靈淑)·정영(精英)한 기운은 하늘이 모으고 땅이 기른 것이어서 이것을 얻는 자는 귀하니, 어찌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꿈치를 접하라. 그러므로 먼저 밝은 두 눈으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며 또 사방을 돌아보아 이 기운이 줄고 왕성한 것을 살피면 삼라만상이 정상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상 밖의 표묘(縹緲)한 것과 의중(意中)에 쌓인 것은 마음으로는 분명하나 입으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奇秀之氣寂然。則無論萬品。皆墜俗白。山無是氣。則敗瓦也。水無是氣。則腐漚也。學士無是氣。則束菟也。方外無是氣。則團泥也。武夫無是氣。則飯袋也。

이런 까닭에 이덕무는 소품문에서 글쓰기의 소재로도, 학문적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서리, 까치, 봉어, 족제비, 쥐와 같은 ‘자연물’을 유독 주요하게 다뤘던 것이다. 이덕무는 지극히 가늘고 지극히 적은 세계에는 너무나 묘하고 너무나 무궁한 조화로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어린아이가 울고 웃는 것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을 또한 익히 보고서 그 무엇을 느낄 수 있고,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교활한 고양이가 재롱을 떠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면 지극한 이치가 이들 속에 있다. 봄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것과 가을 나비가 꽃꿀을 채집하는 것에는 하늘의 조화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많은 개미들이 진(陣)을 이루고 행진할 때 깃대와 북을 빌지 않아도 절제(節制)가 잡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천 벌의 방(房)은 기둥과 들보가 없는데도 칸 사이의 규격이 저절로 고르게 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가늘고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곳에는 너무도 묘하고 너무도 무궁하게 조화된 것이 있다. 대저 천지의 높고 넓은 것과 고금의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또한 장관스럽고 기이하다 할 것이 아닌가.¹⁸⁾

만물을 관찰할 적에는 따로따로 안목을 갖추어야 하는 법이니, 나귀가 다리를 지나갈 적엔 오직 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짐비둘기가 뜰에서 거닐 적엔 오직 어깨죽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매미가 울 적엔 오직 가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봉어가 물을 삼킬 적엔 오직 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는 모두 그들 나름의 정신이 발로되는 곳으로 지극한 묘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¹⁹⁾

이덕무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어린아이, 시장사람들, 고양이, 개, 누에, 나비, 개미, 벌’과 같은 낱낱의 만물에서 지극한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존재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묘리가 숨겨져 있으므로 안목을 길러 더 정밀하게 살피라고 말한다. 즉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저마다의 이치를 타고났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주자학적 인식론과 충돌한다. 주자학의 세계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일리(一理)의 세계다. 일리는 존재에 선행하는 이가 있어 그것이 만물에 관철, 내재하게 된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이덕무는 만물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물에서 개별적 이를 찾아내었던 것이다.”²⁰⁾ 성리학자들은 천지의 이법을 전제했지만, 미미한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았다. 또한 그런 미미한 자연물들에 지극한 묘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덕무는 이 존재들에게 지극한 이치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그들의 생태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다. 동물, 곤충, 식물에 대한 관심은 형이상학적 관념의 세계를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 세계를 중시하는 전환적 인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덕무의 이와 같은 사물 인식은 홍대용이 인물균론(人物均論)을 이끌어 내었던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文人無是氣。則垢囊也。至於虫魚花卉書畫器什。無不皆然。靈淑精英。天鍾地毓。得此者貴。豈與滓穢朽臭。駢肩接踵哉。是故。有炯然雙眸。一俯一仰。又四顧之。先察是氣之銷旺。森羅萬象。不可遁情。然象外縹緲。意中縊網。心了而口不能言也。))

18) 이덕무, 「이목구심서」 1, 『청장관전서』 48.

嬰兒之啼笑。市人之買賣。亦足以觀感。驕犬之相鬩。黠貓之自弄。靜觀則至理存焉。春蠶之蝕葉。秋蝶之採花。天機流動。萬蟻之陣。不藉旗鼓。而節制自整。千蜂之房。不憑棟樑。而間架自均。斯皆至細至微者。而各有至妙至化之無邊焉。夫天地之高廣。古今之來往。觀不亦壯且奇乎哉。

19) 이덕무, 「이목구심서」 2, 『청장관전서』 49.

觀萬物。可別具眼孔。驢度橋。但看耳之如何。鵠步庭。但肩之如何。蟬之鳴也。但看脇之如何。鯽之飲也。但看腮之如何。此皆精神發露。而至妙之所寄處也。

20) 강명관, 「이덕무 소품문 연구」,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313-314면.

이러므로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림에는 물(物)에 도움받지 않음이 없었다. 대체로 군신(君臣)간의 의리는 벌[蜂]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拱鼠]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蜘蛛]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물을 보느냐?”²¹⁾

홍대용은 사물이 사람보다 천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물에서 법 삼을 수 있는 이치들이 있음을 여러 예로써 주장한다. 이 논리는 궁극엔 장자가 말한 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며,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하늘이 똑같다”는 혁신적인 철학적 인식에 이른다. 이덕무의 사물인식은 일리(一理)의 세계를 거부하고 존재마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이라는 철학적 인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홍대용과 이덕무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세계를 거부하는 18세기의 시대적 흐름을 다르게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이 혁신적인 철학, 과학, 정치사상적 인식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덕무는 문학적인 실천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덕무는 소품문을 통해 미미한 세계의 가치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세계인식을 문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는 소품문에서 자신의 사상을 직접 언표한 적은 없다. 이덕무는 현실을 비판하며 경세적이고 사상적인 담론을 주도했던 북학파의 경우와 다른 경로를 걸었다. 홍대용처럼 파격적 발상의 세계 인식을 표명하고 주장하지 않았다. 박제가 처럼 사회비판적인 독설을 강하게 던지지 않았다. 박지원처럼 방달하면서 세상의 고루함을 깨뜨리고, 그 너머를 통쾌하고 유쾌하게 뛰어넘는 경우도 아니었다. 그는 자연물의 신비로운 이치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기존의 성리학적 이념을 회의하게 만들었다.

이덕무의 소품문은 이처럼 적지 않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시키되 철두철미하게 관찰하고 탐색하여 세계의 이치를 표현했다. 그리고 자기만의 문체로 18세기 시대정신을 담아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소품문은 문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진위적인 글이다.

오늘날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고전산문’의 텍스트는 매우 빈약하다. 교육되는 텍스트의 수도 빈약할뿐더러, 고전산문이 이해되는 방식도 너무 빈약한 실정이다. 수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붓 가는 대로 쓰인- 글쓰기로서, 신변의 다단한 문체들을 다룬 문학 양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수필의 정의는 자칫 수필문학을 잡다한 글쓰기요, 무형식의 문학양식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수필은 그야말로 시, 소설보다 떨어지는 변두리 문학으로 취급받게 되었다.²²⁾

그러나 산문은 증세의 매우 중요한 글쓰기 중의 하나였다.

고인의 문장이 영원히 빛나는 불후의 존재가 된 이유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은 이치를 홀로 보고, 보통 사람이 말하지 못했던 오묘한 이치를 홀로 말하였던 데 있다. 나의 말이 나오기 전에는 천하 사람들이 귀머거리나 장님과 같이 이런 이치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의 말이 나오자 천하 사람 중 귀머거리는 듣고 장님은 볼 수가 있어, 마치 이 이치가 나의 말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 같아 지난날 같이 귀가

21) 홍대용, 「醫山問答」, 『국역담헌서』, 민족문화추진회, 1974.

是以古人之澤民御世。未嘗不資法於物。君臣之儀。蓋取諸蜂。兵陣之法。蓋取諸蟻。禮節之制。蓋取諸拱鼠。網罟之設。蓋取諸蜘蛛。故曰聖人師萬物。今爾曷不以天視物。而猶以人視物也。

22) 김대행, 앞의 책.

있었던만 남처럼 듣지 못하고, 같이 눈이 있었던만 남처럼 보지 못했던 것을 괴이하게 여기게 된다.²³⁾

천하의 일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천하의 이치는 너무나 깊은데, 천하 사람들이 반드시 사람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 그것을 알고 있다. 산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들에게 나만 홀로 발견한 깊고 오묘한 이치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산문을 쓰는 것이다. 내가 천하의 사리를 전해주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장님이나 귀머거리와 마찬가지로의 상태다. 내가 전해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장님과 귀머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18세기 초의 문인 조귀명은 산문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산문의 글쓰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

조귀명은 산문 쓰기에서 추구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잠간의 사이에 깊고 오묘한 이치를 펴고 심상한 가운데서 신령한 깨달음을 간직하니 뜻이 기이하면 할수록 체제는 바르게 되고 논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글은 더욱 쉬워지는 것 이것은 내가 꿈에도 소동파에게 배우려했던 것이나 여태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²⁴⁾

산문의 글쓰기가 지향하는 바는 주변의 평범한 모든 것들에서 오묘하고 신령한 이치 혹은 진실을 깨달아 이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며, 뜻이 기이하고 논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체제를 바르게 하고 쉽게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전산문은 수필 양식의 정의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 붓가는 대로 쓴 글이나 신변잡사를 기록한 글이 수필이 아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정의하면 고전산문 혹은 수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고전산문은 체제와 규범을 지향하며, 동시에 이런 체제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더구나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쉽게 전해야 한다. 즉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표현에 달통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신변잡사를 자유롭게 기록한 글이 아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다룰 수 있지만 반드시 나만이 발견한 비의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것에는 반드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물만의 오묘한 이치와 가치가 들어있어야 한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뻔한 이치요 뻔한 이야기라면 산문에 담을 수 없다.

이덕무의 소품문은 고전산문이 지향하는 문학적 의미와 정취가 제대로 표현된 글이다. 산문에서 지향하는 세계의 이해란 어떤 것인가를 폭넓게 보여준다. 반드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거나 이념을 표현하는 글만이 세계를 이해하는 글은 아니다. 내가 우발적으로 마주친, 아주 사소한 세계 속에서 지극히 새롭고, 지극히 의미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이덕무의 소품문은 이 세상의 잘디 잔 생물들에서 세계를 이해했다. 그 세계는 흥미진진한 재미를 주기도 하고, 사물에 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덕무의 소품문은 고전산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이덕무의 소품문은 경계에 놓여 있는 글쓰기이다. 문학적이면서 비문학적이다. 뛰어난 묘사와 형용으로 언어 표현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생물관찰기 혹은 동물관찰기처럼 생태에 관련된 것만을 기록한다. 사실에 입각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23) 趙龜命, 「答林姪彥春象元書」, 『東谿集』,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참조.)

24) 조귀명, 「答敬大書」, 『東谿集』 권10.(이홍식, 「동계 조귀명의 주제론적 글쓰기와 기의 미학」,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 참조.)

관찰한 사물의 현상을 진술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관찰기를 쓰는 서술자는 매우 엄정하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듯 세계를 관찰하고 진술한다. 좋은 산문은 세계를 아름답게 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사물에 대한 오랜 시간의 관찰과 탐색, 치밀하고 엄정한 현상의 분석과 진술이 오히려 좋은 글의 원천임을 알게 해준다. 문학이 과학적 사고와 떨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작품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다. 엄정하고 치밀함이 추구되어야 문학으로서도 좋은 글이 되고, 형상이 뛰어나야 비문학적인 글로서도 좋은 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경계에 놓인 글쓰기는 문학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문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글이 아니다.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는 글쓰기이다. 누구나 동물기를 쓸 수 있고, 누구나 자연 풍경을 정채롭게 묘사할 수 있다. 다만 사물에 대한 애정과 사물에 대한 정직한 시선만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철학적 관점이 서 있다면.

이런 의미에서 이덕무의 소품문과 같은 고전산문은 문학교육에서 글쓰기의 본질을 이해시킬 때, 그리고 모든 학문의 본질을 이해시킬 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문제삼을 때 그리고 문학의 본질로서의 형상화의 문제를 가르칠 때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덕무 소품문의 특징과 이덕무 소품문의 산문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덕무의 소품문에서 주목할 점은 자연의 생태와 동물들의 신비로운 생명 원리를 담아내었다는 사실이다. 이덕무의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은 18세기 소품문 작가들이 천지만물에 주목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던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유독 이덕무의 소품문에는 자연 생태의 새로운 면모, 혹은 동물 생태의 놀라운 비의들을 묘사하는 글이 많았다. 이런 점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른 소품문 작가들은 천지만물에 대한 묘사를 더 세밀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이덕무는 생물학자나 동물학자처럼 자연의 생태적인 측면에 치열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런 자연은 풍경이나 이야기의 소재거리로 다뤄지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자체가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이덕무는 눈, 서리, 까치, 닭, 쥐, 족제비 등 자연물의 생태를 관찰하여 그 자연물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전문가적인 관심과 학문적인 관심으로 동물이나 곤충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문학적인 글쓰기로 전달하면서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이 때문에 이덕무의 소품문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작품을 읽으면 아름답고, 어떤 작품을 읽으면 경이롭다. 어떤 장면에서는 은은한 정감이 느껴지고, 어떤 장면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이덕무 소품문의 매력이다.

이덕무 소품문은 고전산문의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산문이 매우 중요한 문학 양식임을 성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고전산문이 '글쓰기와 세계 이해와 형상화'의 본질을 꿰뚫어 해주는 원천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참고문헌>

- 이덕무, 『국역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78.
홍대용, 『국역담헌서』, 민족문화추진회, 1974.
- 강명관, 「이덕무 소품문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2002.
강명관, 「이덕무와 공안파」, 『민족문학사연구』 21, 민족문학사학회, 2001.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권정원, 「이덕무 초기 산문에서 공안파 수용의 실천양상」,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김대행, 『문학교육의 틀짜기』, 역락, 2000.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심경호,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안대회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안대회,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 『고전문학연구』 24, 2003.
이기현, 「조희룡 소품문 연구-척독,제화소품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홍식, 「동계 조귀명의 주제론적 글쓰기와 기의 미학」,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
정민, 「연암 척독 소품의 문예미」,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홍인숙, 「이덕무 척독 연구-내면 혹은 사적 자아의 발견」, 『한국한문학연구』 33, 한국한문학회, 2004.

<키워드>

이덕무, 소품문, 자연의 생태, 동물의 생태, 묘사, 형상화, 산문교육

<Abstract>

The Special Feature of Yi Duk-Moo(李德懋)'s Sopoommun(小品文) & the Meaning of Prose's Education

This essay examined carefully The Special Feature of Yi Duk-Moo(李德懋)'s Sopoommun(小品文) & the Meaning of Prose's Education.

The appearance we should watch out for Yi Duk-Moo's Sopoommun, is that describe the natural ecology and the mysterious vitalism of the animal kingdom. His concern of the natural ecology is placed on a track with a movement of writers in 18th century. They also attracted by all things in the universe, changed moment by moment. But it was full of conspicuously the description of natural ecology and the vitalism of animals kingdom in Yi Duk-Moo Sopoommun. Yi Duk-Moo used his

esources that express exactly the features of nature as frost, rats, weasels, fish, magpie etc. The expression is full of life. Therefore One work is pictureresque, the other work is curious. Yi Duk-Moo's Sopoommun put us on artistic effects and give us new knowledge or intelligence.

Yi Duk-Moo's Sopoommun is forced us to recognize newly the educational value of classic prose. This classic prose cause us to realize fact that be the source of knowledge, penetrated into 'writing & the understanding of world & embodiment'.

소속 : 강원대 시간강사

주소 : (158-769)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신시가지9단지아파트 932동 1303호.